

정책동향

대전시, 나노벤처단지 조성

한국과학기술원 나노융합센터에서 개발된 나노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대덕테크노밸리 안에 3만평 규모의 나노벤처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나노팹(fab)센터의 연구성과와 대덕연구단지의 기초과학기술, 나노벤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나노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다.

대전시는 3만평의 산업단지를 공공시설 집적(1만평) 부분과 나노 관련 개별기업이 집적되는 나노산업단지(2만평) 2개 권역으로 나눠 '나노네트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중 나노산업단지를 대덕테크노밸리 1단계 개발계획(2001~2003년)에 포함하고 내년 3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나노산업체 분포조사와 입주시설 및 배치 관련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 나노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국가시설 유치 및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 디지털콘텐츠산업에 2천억 지원

2003년에는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산업 분야에 2000억원의 자금이 정부로부터 새로 지원된다.

또 CDMA에 이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핵심 기술로 4세대이동통신 등을 집중 개발하기 위해 7800억원이 투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부의 2003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 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예산안은 우선 국민정보화 교육 재원과 기업 정보화 지원 재원을 각각 562억원과 661억원씩 늘린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센터나 미용실 등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해 보급하는데 315억원을 배정했다. 또 실무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 그리고 국제 감각을 갖춘 IT인재 육성에 1713억원이 지원된다.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효과가 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은 2031억원이 배정됐다.

기술동향

생명공학단체, 보건부 법안 재검토 건의

생명공학 관련 단체들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데 대해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생명공학연구조합·전경련생명과학산업위원회·한국제약협회·한국생물산업협회 등 생명공학 관련 5개 단체는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복제 시도 금지 등을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부 법안이 지나치게 생명윤리만을 강조함으로써 산업계의 연구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돼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 내용은 ▲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명칭을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연구 목적의 이종간 핵이식을 허용하며 ▲치료 및 연구 목적의 배아복제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복지부 법안이 난치병 치료에 필수적이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체세포 복제와 이종간 핵이식 연구를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국내 기술의 사장, 전문 연구인력의 해외유출, 선진국에 기술중속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통신 테스트베드 구축 내년까지 완료

한국광기술원(원장 최상삼)은 최근 광통신 부품 및 모듈 테스트베드 참여업체가 모두 선정됨에 따라 2003년 말까지 '광통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광통신 테스트베드는 640km 이상을 전송할 수 있는 장거리망 광통신시스템과 상용시스템 성능인 메트로망 광통신시스템, 실제 서비스가 가능한 가입자망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며 내년 말까지 9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를 위해 기술원은 최근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자로 아이티(대표 서승관)와 읍시스테크놀로지(대표 임병문), 우주e-테크(대표 장재환), 광주과학기술원(원장 나정웅) 등 4개 업체 및 기관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아이티는 장거리망을, 읍시스테크놀로지는 메트로망을, 우주e-테크와 광주과학기술원은 가입자망을 각각 설계·개발하고 각 시스템은 광통신용 부품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그보드에 장착된다.

기술원의 광통신 테스트베드센터장 김동환 박사는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면 시험기간이 2~3일 정도 걸리고 비용 또한 외국의 10분의1 수준으로 저렴해 국내 광통신 부품업체에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동향

벤처기업 수출 30% 늘어

상반기 벤처기업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8월중 벤처기업 수출이 5억6600만달러로 지난해 8월에 비해 30.8%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까지 벤처기업 수출실적 누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9% 증가한 42억4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출호조로 인해 전체 수출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8월의 3.32%에서 올해는 4.10%로 높아졌다.

지난 8월 수출 가운데 품목별 비중은 전자·전기제품이 60.4%로 가장 높았고, 기계류 19.6%, 철강·금속제품 4.9%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휴맥스와 세원텔레콤이 지난해에 이어 수출실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DVS코리아와 어필텔레콤, 벨웨이브, 태영텔스타, 월드텔레콤 등이 뒤를 이었고, 이화다이아몬드와 현대디지털텍, 에스엠전자 등이 10위권 내에 들었다.

산자부 관계자는 “올 8월까지 수출누계를 보면 벤처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부문 자금부족 규모 축소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4분기 기업부문 자금조달규모가 경기전망 불투명에 따른 설비투자 부진으로 전분기 23조5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부족규모(자금조달-자금운용)는 전분기의 7조6000억원보다 줄어든 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개인부문은 주택구입자금 및 가계소비지출 증가로 자금운용 여력이 저하되어 금융자산 증가규모가 전분기 24조9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한 24조1000억원을 기록했고, 금융부문의 비금융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규모는 전분기 39조4000억원보다 늘어난 4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부문별 자금조달 추이를 살펴보면, 기업부문은 주식, 기업어음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늘어난 반면 은행차입금 등 간접금융은 증가세가 둔화됐다.

개인부문은 예금은행 저축성예금 및 유가증권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비은행금융기관 예치금이 증권사 고객예탁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대폭 축소됐다.

해외뉴스

[미국] 칼리 피오리나 HP 회장, 5년 연속 美최고 여성사업가

칼리 피오리나 휴렛팩커드(HP) 회장(48)이 5년 연속 미국 최고의 여성사업가로 선정됐다. 미국의 격주간 경영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기업인 50인’ 중 1위를 차지한 것.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여성은 식품업체인 크래프트 푸즈의 공동 최고경영자(CEO) 베스티 홀덴. 또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e베이의 맥 휘트먼 사장(46)과 웹시의 인드라 누이 사장(46)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3위를 차지했던 ‘살림의 여왕’ 마사 스튜어트 리빙오미디어 그룹 CEO(61)는 생명공학업체인 임플론의 내부자 거래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이미지가 크게 실추,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한편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영국의 언론기업 피어슨의 마조리 스카디노 CEO(55)가 지난해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중국] 2006년 IT 시장 규모 20조 돌파

IT서비스 시장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 시장과 함께 IT제품 응용 시장을 형성하는 주류 시장이다. 이 시장은 금년 소프트웨어 시장보다는 다소 나은 500억위안(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중국 시장에 비취볼 때 능히 넘어설 것이다.

최근 선저우수마(神州數碼) 등이 중국의 IT서비스 시장을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 과감하게 투자를 늘리면서 뛰어들고 있다. 예상대로 상당한 규모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역시 선저우수마의 선견지명이 확인됐다. 신식(정보)산업부의 거우중윈(苟仲文) 부부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향후 4년 후인 2006년까지 금년의 약 2.7배 이상인 1362억위안(20조4300억원)에 이르러 국내총생산 18조위안(2700조원)의 0.7%를 점유, 1%대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일본] 나스닥재팬, ‘헤라클레스’ 로 개칭

오사카증권거래소는 미국 나스닥과의 제휴를 해소한 나스닥재팬 시장의 이름을 ‘니폰 뉴마켓’ 또는 ‘헤라클레스’로 변경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새 이름은 내달 초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금융청 장관의 인가를 거쳐 12월16일부터 통용된다.

오사카증권거래소측은 “그리스신화 최대의 영웅인 헤라클레스의 이름을 채택함으로써 이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 기세 좋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